

거룩한 섬김(RB 8-20장)

규칙을 뜻하는 ‘Regula’는 여행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건물의 난간’, ‘길의 울타리’, 또는 ‘행동과 삶의 잣대’를 의미합니다. 규율과 규칙이라는 의미 외에 하느님을 찾아 나선 사람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지지대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수도규칙은 베네딕도 성인께서 몸으로 살아냈고 증언한 것으로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바랐던 은사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규칙서는 단순히 법규들의 모음이라기 보다는 복음을 사는 독특한 방식을 소개한 영적 문서이며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규칙서 구조 안에서의 전례규정

일반적으로, 머리말까지 포함하여 모두 73장으로 이루어진 규칙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성격이 강한 머리말부터 7장까지를 포함하는 영성적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이며 규율적인 성격이 짙은 8장에서 72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수도 삶의 이상과 목표, 수도승의 종류, 수도원에서 배워야 할 덕목들(순명, 침묵, 겸손)을 다루는 ‘영성부분’ 바로 뒤에 공동기도에 대한 전례규정들(제8-20장)이 배치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는 전례와 영성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순명과 침묵을 체득하고 영성생활의 총체라 할 수 있는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수도승들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룩한 섬김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또 성무일도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라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사람의 입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따라서 규칙서의 이러한 배열은 베네딕도 성인의 의도, 곧 시간전례가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례규정에 대한 분량을 비교해 보아도 스승의 규칙서보다 성규가 상대적으로 이부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기도에 대한 성인의 깊은 애정과 고민을 느끼게 합니다.

2. 수도원의 시간

베네딕도 성인에게 있어서 수도원의 핵심적인 영적 동력은 ‘opus Dei’와 ‘lectio Divina’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일과는 시편기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독서, 노동, 개인기도 등이 그 둘레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의 하루는 시간경에 따라 규정지어졌는데 그 시작은 '밤의 시간경'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구약 전통에서 하루의 시작이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만물이 잠든 어둠속 속에서도 수도자들만은 깨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찾으며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시간전례를 통하여 수도자는 하루를 온통 하느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전례는 사계절 자연의 질서에 맞춰 조화롭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례의 가장 중심점은 부활절이고 기도 시간의 배정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긴 겨울에는 기도를 길게, 밤이 짧은 여름에는 기도를 짧게 하도록 하여(이때 시편의 수는 줄이지 않고 독서의 양을 줄임) 기도의 분량과 내용이 자연의 질서와 흐름에 맞춰 조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도자의 삶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님을 간파한 성인이 전례규정을 세움에 있어 이치에 맞게 그리고 사려 깊게 또 규칙을 자연의 순리에 적용시키려 애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거룩한 섬김의 의무

시간전례는 무엇보다도 시편을 통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찬양입니다. 규칙서는 온 세상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기도 곧 시간전례를 '섬김의 의무', '거룩한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16,2; 18,24; 19,3; 49,5). 그런데 공동체가 거행하는 시간전례를 왜 '사람의 일'이라 하지 않고 '하느님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전례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례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시간전례 시간이 정확히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느님의 일'보다 아무것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 일과를 질서 있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매일 8번 드리는 이 시간기도가 제 시간에 바쳐져야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인은 시간전례가 공동체의 기도이므로 '**함께**' 참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늦는 이를 위하여 초대송을 약간 느리게 외워 다음 시편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같은 지향으로 모인 형제들이 '**함께**' 하는 기도는 하느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큰 잘못을 한 이가 공동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보속을 받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에서 또 형제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에서 자신이 제외되었음을 깨달으라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시간전례는 하느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앞세우지 않는 정신'과 '다 함께'라는 친교의 정신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열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거룩한 섬김의 자세

성인에게 있어서 전례는 전례지침서를 조목조목 염수하거나 외적 치장을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일’에 대한 베네딕도 성인의 이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는 ‘시편을 외우는 태도에 대하여(제19장)’와 ‘기도 때의 공경심에 대하여(제20장)’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장은 기도의 내면성에 대한 내용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정신과 정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인은 공동기도로 시편을 외울 때는 무엇보다 두려움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천사를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수도생활 전체가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시간 전례를 거행할 때는 의심 없이 하느님의 특별한 현존을 상기하고 의식해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보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마음이 입술과 일치하고 목소리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일깨우십니다. 즉 존경스러운 태도와 주의력을 갖춘 마음으로 진심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인은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찬양, 외면과 내면, 이론과 실천, 이상과 현실이 일치된 삶을 궁극적인 수도생활의 목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묵상>

1. 성규 8-20장. 공동기도에 대한 베네딕도 성인의 의식을 간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며 읽어봅시다.
2. 성무일도를 바치는 나의 외적 준비나 자세, 그리고 내적 마음가짐과 정성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3. 공동 성무일도가 내게 영적 활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